

구도심의 교육시설의 변화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서론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이점들을 누리면서 지내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도시공공공간 부족, 집값상승, 도시 빈부격차와 수도권 인구 과밀화 등 많은 도시문제들이 보여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인해서 다량의 주거공간 확보로 인한 집값상승, 공간의 가치가 돈이 최우선인 의식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공공공간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것 처럼 도시의 문제는 인과관계들이 서로 얽혀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여러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있어 핵심은 공간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이라 생각한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에 있어 과거보다 좋은 상황은 공간의 가치를 돈 뿐만이 아닌 공공성과 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수준은 과거보다 확실히 향상하였으며, 필요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선 도심지에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활용 면적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교육시설의 공간변화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교육방식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교육시설의 공간은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획일화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성 배제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화된다. 집단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집단주의적 성격이 짙어지면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반대를위한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진행중인 젠더집단간의 대립, 세대간의 대립등 사회적 현상들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공간들과 교육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거의 상황들을 바꾸기위해서는 공공시설의 공간 다양화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동시에 도시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론 2018년 12월 발표된 3기신도시 계획안의 교육시설들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점들을 볼 수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채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교실과 운동장으로 2분할된 기존의 단순한 형태가 아닌 마을의 공원에 다양한 형태로 울타리 없이 마을에 스며든 모습이다. 시민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욕구와 변화가 필요한 교육공간을 모두 해결한 모습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있다. 하지만 구도심의 마을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4기, 5기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 구도심의 사람들을 빼내는 방향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한다.

현재 구도심의 공공교육시설인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대부분의 모양들을 보면 대부분의 모양이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천편일률 적이며, 70년대 지어진 학교 건물이든 2000년대 지어진 학교건물이든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록 학교에 부여된 대지의 크기가 줄어들어 운동장은 작아지는 형태가 대다수 이다.

구도심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주변의 공간들을 활용해야한다. 학교의 영역을 어느정도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주민들을 끌어들이면서 교육과 공공의 영역을 어느정도 섞을 수 있다면, 주민들의 필요시설도 교육시설을 통해 해결 할 수 있고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교육시설을 공공시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의 단점으로 학생들의 교육공간에 외부인이 쉽게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단점으로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울타리로 차단되어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확대를 통해 소통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시설의 학생들도 생활 하면서 보고 눈에 익게 될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번 지나가고 외부인이 교육시설에 들어왔을때, 공개된 공간이지만 주민들의 생활 감시 속에서 예방되고 해결될 문제이며, 외부의 침입 문제 뿐 아니라 내부의 학생들의 비행,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도 어느정도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와 다르게 쉽게 통제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주민들간의 소통의 부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주변 건물들을 어느정도 공공 시설로 바꾸어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마을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열게된다면 마을 각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마을의 이미지를 만드는것은 도시가 유지되는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지속하는것으로 주민들은 애정을 가지게 될것이고,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도시가 생겼다고 쉽사리 이동하여 원도심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마을의 발전과 유지는 마을 사람들의 중심지 설정과 모여서 어떠한 이벤트를 열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교육시설을 공공시설로 확대하는것이COVID-19 와 공간에대한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인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식개선에 힘을 쓰는 동시에 천천히 구도심 교육시설 주변의 공간을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바꿔야 한다.

결론

교육시설의 변화가 공간에대한 의식개선의 시작이라는 의견은 결국 의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구가 줄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미래의 1기 신도시는 N기 원도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래의 원도심 생성을 막고 무조건적인 N신도시를 억제하는 시작을 교육시설의 변화를 통해 천천히 나아가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간절히 원한다.